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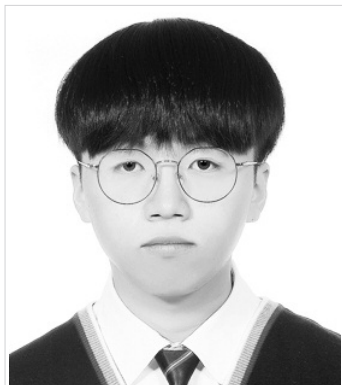
지난해 고 3학년을 보낸 학생들에게 새해는 떠날 시기가 왔음을 알리는 신호 같다. 같은 교실에서 학창시절을 보내던 친구들은 새로운 시간을 맞아 새로운 삶의 각오를 다진다.  
짧게는 일년, 길게는 12년간 재능과 소질을 개발하고 노력하며 각자의 방향에서 준비를 마친 학생

들은 이제 사회의 문 앞으로 성큼 다가섰다.  
다양한 분야에서 빛나는 성과를 이룬 수많은 학생 중 특히, 우수한 학업성적으로 이른바 명문대에 입학한 4명의 학생을 통해 이들의 노하우를 공유하고자 한다.  
질문은 △자기소개 △학과 지원계기 △추천공부

방법 △슬럼프 극복방법 △고마우신 분들 △새해 소망 순으로 이루어졌다. 학생들의 소중한 이야기를 지면관계상 다 실지 못한 것을 안타깝게 생각하며 특히, 고마우신 분들에 대한 학생 각자의 인사는 공통적인 내용을 담고 있어서 생략하였다.  
네 학생 모두 표현은 조금씩 달랐지만, 부모님과

가족들, 선생님, 친구들과, 응원을 아끼지 않은 주변 사람들에게 진심을 담은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더 넓은 세계로 나아가는 고창군 모든 학생의 앞날을 축복하며 무궁한 발전이 있기를 기원한다.  
유석영 기자

## 산책과 긍정적인 생각으로 슬럼프 극복



김도호 (고창북고등학교)  
원광대학교 한의예과,  
서울대학교 간호학과 합격

어린 시절부터 아픈 사람에게 봉사하는 일이 매력적이라고 느껴져 의료인을 꿈꾸었다. 특히, 『나이팅게일은 죽었다』 등과 같은 간호사 관련 책을 읽으며, 환자와 공감하는 간호사의 모습에 깊이 감명받아 간호학과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그러다 문득 양방과 한방이 결합하면 더욱 시너지효과가 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고, 우리 몸의 균형을 맞춰줘 병을 예방할 수 있는 한의약의 여러 특성에도 흥미가 생겨 한의예과에도 지원을 하게 되었다.

사람마다 공부방법은 다 다르지만, 공부의 기초는 ‘복습’과 ‘반복’에 있는 것 같다. 하루하루 공부 후 매번 복습을 하였고 반복 학습으로 ‘나의 것’으로

‘완벽’하게 만들기 위해 노력했다. 특히 학교에서 각자 특성에 맞는 자율학습실을 배정하여 저녁 시간 동안 스스로 공부할 수 있도록 해주었는데, 이때야말로

복습하고 반복했던 것들을 오롯이 내 것으로 되새김질 할 수 있는 시간이었다.

슬럼프 극복을 위한 특별한 방법이 있다면 그건 바로 적당한 ‘산책’과 적당히 ‘긍정적인 생각’이다. 공부가 안될 때는 학교 운동장을 산책하며 머리를 식히고 미래의 즐거운 일에 대해 상상했다. 특히, 가장 많이 한 생각은 수능을 끝내고, 그동안 미루어두었던 하고 싶은 일을 하는 모습, 원하는 대학에 합격한 모습이었던 것 같다.

새해소망은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부모님 건강이다. 또, 초심을 잃지 않고 열심히 공부하여 응원해주고 믿어주는 분들에게 베푸는 삶을 살고 싶다.

## 무조건 암기보다 이해를 먼저 하려고 노력



정영상 (고창고등학교)  
서울대학교 전기정보공학부 합격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이공계 열에서 적성을 찾았고, 관련된 다양한 학과를 찾아보며 각 분야의 체험활동을 하였는데 그중 전자공학과의 가장 흥미로웠다. 전자공학은 미래 확장성이 넓고 앞으로 삶의 진로에 꼭 필요한 전공인 거 같아 지원하게 되었다.

효과적인 공부방법이라고 생각한 방법은, 무작정 암기보다는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여 최대한 먼저 이해하려고 노력했고 장기기억 영역에 남도록 반복했다. 이해를 통한 반복은 빨리 흡수되고 더욱 오래 기억될 뿐 아니라 실증도 떨어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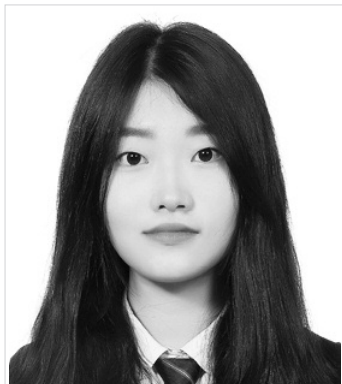
2학년 때는 성적이 크게 떨어진 적이 있었는데 마음을 다잡

고 돌려보려 해도 다시 성적을 오르지 않아 큰 어려움을 겪었다. 그 이유를 계속 생각하며 찾아보았고 2학년 성적이 좋지 않았지만, 포기하지 않고 3학년 때 새로운 각오로 더욱 열심히 해

서 차근 차근 보완하였다. 이런 경험으로 슬럼프가 왔을 때 이를 해결해주는 건 시간이라고 생각한다. 이미 지나간 일은 묻어두고 앞에 주어진 일을 더욱 열심히, 보완해서 새마음으로 다시 시작하는 것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일 것이다.

대학생활은 새로운 삶의 시작이다. 주위의 뛰어난 친구들과 서로 좋은 영향력을 주고받으며 열심히 생활하는 것이 올해의 목표다. 특히, 고등학교 때 미루어두었던 일들도 이것저것 시도해보며 구체적인 진로를 찾고 세워나갈 것이다. 좋은 기회를 얻은 만큼 기회를 놓치지 않고 앞으로의 인생에 큰 전환점이 되는 대학 생활을 위해 스스로 끊임없이 노력하겠다.

## 좋아하는 공부를 먼저 시작하여 집중할 힘 길러



소진하 (고창북고등학교)  
전남대, 조선대, 원광대 의예과,  
전북대, 덕성여대 약학과 합격

중학생 때부터 시간을 투자한 만큼 점수가 나오는 공부에 재미를 붙였고 배운 것을 가장 가치 있게 활용하며 사는 방법에 대한 고민을 했던 것 같다. 이는, 나의 공부로 타인의 아픔을 치료하고 생명을 살리는 의사라는 직업을 꿈으로 삼는 동인이 되었다.

이과지만 국어,영어에 더 자신이 있었고 가장 좋아한 수학은 가장 힘든 애증이 과목이었다. 학교의 ‘으뜸인재’ 프로그램이 수학공부에 많은 도움을 주었다. 선생님과 어려운 문제들을 따로, 또는 함께 풀어보며 문제 풀이 체계를 구축할 수 있었다. 수1, 수2, 미적분의 개념정리노트를 만들고 문제를 풀 때 떠올려야 할 생각 구조를 덧붙여 적어서

공부했던 것이 좋은 점수로 나타났다.

앞만 보고 달리다보니 3학년 때 슬럼프가 종종 오기도 했는데 그럴 때는 하루 정도 아무것

도 하지 않거나 좋아하는 과목을 먼저 공부하는 방법으로 변화를 주었다. 국어 비문학을 읽는 것을 좋아해서 비문학 공부로, 앉아있을 힘이 생겼을 때 비로소 다른 공부를 한 것 같다. ‘공부는 엉덩이 힘’이라는 말이 있듯 얼마나 오랜 시간을 투자했는지를 정직하게 보여주는 게 바로 성적이라고 생각한다. 당장 좋은 성적이 안 나오도 매일 꾸준히 노력한다면 언젠가 비약적으로 성장한 자신을 마주하게 될 것이다.

2023년에는 소중한 예과 생활도 즐기고, 다양한 경험을 하여 정신적으로 성장하는 것이 목표이며 주변 사람들이 모두 행복한 일 년을 보내기를 바란다.

## 요일별로 교과목을 정해두고 공부하며 내신관리



지정음 (고창고등학교)  
카이스트 합격

초등학교 2학년 때 이사온 낯선 환경에 적응하느라 하루도 빠짐없이 수학 문제를 풀고 쾌감을 느꼈던 것이 몸에 밴 자기주도학습이 되었다. 자기주도학습과 성실한 학습 태도가 학창 시절 내내 큰 힘이 되었고 원하는 대학에 입학하는 밑거름이 되었다. 평소 ‘창업’의 꿈을 이루고 잠재성을 발전시킬 학과와 대학교를 고민한 결과, 1학년 때 학과를 결정하지 않는 카이스트 무학과로 진학하게 되었다. 창업지원 시스템이 체계적으로 구축되어 있어 창업을 꿈꾸는 저에게 가장 적합한 대학교라는 생각이 들었다. 내신관리가 중요하기 때문에 주말을 이용하여 주단위로 배운 교과 수업 내용을 정리하였다. 이러한 복습시간으

로 꼼꼼하게 수업 내용을 체크할 수 있었다. 주중 자율학습시간에는 요일별 교과목을 정해두고 공부하여 치우침 없이 모든 과목에서 좋은 성적을 낼 수 있도록 준비하였다. 내신과 수능이

모두 중요하기 때문에 학기 중엔 내신관리에 중점을 두고, 방학 때는 수능 준비에 많은 시간을 할애하였다.

시험준비를 하면서 때때로, 시험 후 즐기고 싶은 것들을 노트에 적었다. 공부하다 지치고 힘들 때 적어두었던 노트의 내용을 보며, 최선을 다해 시험을 치른 후 하고 싶었던 것들을 맘껏 즐길 생각을 하면 힘든 시간을 이겨낼 수 있었다. 꿈을 이루기 위한 첫걸음을 내딛는 2023년이 기대되면서도 떨린다. 과학교, 영재고 출신 학생들이 많아 공부하는 데 어려움도 있겠지만 반대로 그런 친구들과 함께 공부할 수 있다는 기대감도 크다. 또한, 공부뿐 아니라 다양한 문화활동과 경험도 쌓고 싶다.